



티베트 천장, 하늘로 가는 길

天葬

‘먼저 긴 칼로 시체의 왼쪽 발뒤꿈치를 툭 하고 쳤다. 그리고는 발목, 정강이, 허벅지다리, 팔, 어깨, 목, 머리 순서로 사정없이 쳐댔다. 앞치마는 피로 물들었다. 천장사는 시신을 크게 덩어리 내어 두 명의 보조 천장사에게 던졌다. 보조 천장사 중 한 명은 묵직한 해머를, 다른 한 명은 납카로운 칼과 주걱 비슷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덩어리로 잘린 육신을 해머로 잘게 부수는가 하면 납카로운 칼로 구불구불한 장기를 도려내기도 했다. 대화도 표정도 없었다.’ (티베트 천장, 하늘로 가는 길) 중

죽음은 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두렵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티베트 인들은 “죽음은 웃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한다.

심학주 명지대 교수는 7월 2일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토요법석에서 티베트의 장례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티베트에서 머물며 철저한 검증과 현장자료를 기초로 전하는 티베트의 천장(天葬) 문화와 변화하는 티베트의 실상을 실감나게 전했다.

티베트 불교와 천장(天葬)의식

티베트 전통 장례법인 천장(天葬)은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땐 끔찍하고 잔혹한 풍경입니다. 천장의 의식은 일반인에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들은 저마다 독특한 전통의식과 종교집회를 정기적으로 주관합니다. 이것은 사원과 민간인들의 정신적 교류를 위한 문화적 제도이고 영혼의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증금 사원 역시 증금 카규파의 핵심 도장으로 오래전부터 이 종파만의 특별한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증금 사원이 주목받는 것은 오늘날까지 천장 의식을 거의 완벽하게 전수해오고 있고 거대한 천장터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독특함 때문에 순례객들이 몰리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 탓에 이방인들이 이 사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시 사원 점검이나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발각됐을 경우 사원이 받을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라면 중국정보와 사원과의 관계, 라마승들의 종교 활동 자유성 여부, 중국 정부의 사원장악 방법 등을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원과 구별되는 이 사원의 전통은 지정된 천장 의식 전날 이 사원 안의 라예(Lha-lye) 경당원 앞마당에 시체를 하룻밤 방치한 후 동이 틀 무렵 천장터로 옮깁니다. 천장터 현장에 어떻게 발을 들여 놓게 됐습니까. 시체 세구가 보였고 한 구는 벌써 처리했는지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인육 냄새에 오감과 내장이 모두 뒤집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뎀덴(Dromden)이라고 불리는 메인 해부사의 한 손에는 긴 갈고리가, 다른 손에는 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사는 갈고리로 시체의 옷을 능숙하게 벗기고는 본격적으로 해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체당 해체하는 작업은 약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됩니다. 오전 내내 해부작업을 하면 천장사들은 잘 버수 육신을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보리떡 찹과와 잘 버무려 먹기 좋게 여기저기 흠여 놓습니다. 이내 작은 송아지만한 독수리 200마리가 달려듭니다. 인육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해부를 마치고 의식을 마치기도 전에 인육에 입을 댄다면 망자의 영혼은 올바로 전송되지 못할뿐더러 가족에게도 불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식이 마치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제지합니다. 의식을 마친 후 망자의 가족들은 무표정하게 독수리들이 깨끗하게 먹여주길 바라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티베트 민족은 천장을 통해 곁집에 불과한 인간의 육신은 갈로 다듬고 정성스럽게 해부해 천국의 사자인 독수리에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술가에게 일임해 다른 생명체로 전송합니다. 일면 해괴해 보이지만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티베트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여행길입니다. 나와 타인, 자민족과 이민족이라는 습관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을 차갑고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티베트인들의 경건한 천장 의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

티베트 민족의 장례문화와 죽음관

티베트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인 산소마저도 모자라는 척박하고 험난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티베트는 세계와 일정한 정도의 격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

간은 서로 상응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이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계라는 순응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사회 문화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는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동물과 식물,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체로서 존경받아야 하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주로 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기에 기묘하기 짝이 없지만 이 장례의식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자생 문화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티베트 문화는 불교입니다. 종교가 곧 삶 자체인 티베트에서는 아무리 험란한 산지나 대초원일지라도 마을이 있는 곳이면 티베트어로 ‘곤빠(寺院, ghen-ba)’라 불리는 크고 작은 불교사원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현대인들에게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불교사원은 티베트인들에게 언제든지 영혼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생이란 수많은 생을 거쳐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

이들의 문화 중 장례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며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장례의식을 종교의식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수장(水葬), 탑장(塔葬), 화장(火葬), 천장(天葬, 조장(鳥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장례법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장례법은 천장입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티베트인들이 왜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아닌 천장을 선호할까요?

설산고원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함께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과응보나 윤회가 천장 문화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영혼불멸론, 사람이 죽은 후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연속된다는 믿음은 민중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을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의 바탕에 불교의 생사윤회설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

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영혼을 좋은 곳을 이동시키는 의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세(轉世)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연속성을 믿습니다. 독수리에게 육신을 보시하고 영혼은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달라는 간절함을 담은 천장의식은 지극히 이타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에 생전의 행위에 따라 내세에서 천계에 들어가게 될지 지옥에 들어가게 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망자의 영혼을 윤회의 궤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천장은 망자가 윤회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증금 사원에서 만난 한 라마승이 환생과 윤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생이란 수많은 생을 거쳐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환생은 완전함과 영적의미를 약속해 준다. 환생은 과거의 행위를 수확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즉 우리가 과거에 만든 것이 내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순간’에 다음 생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며 환생은 실현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무너져 가는 라마왕국

지금 포탈라궁은 주인을 잃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입장권을 사는 곳에서 출구까지 모두 한족인 주인행세를 하고 매년 넘쳐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궁전은 일년 내내 보수공사를 합니다.

제가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어느 노인에게 “티베트가 현재처럼 중국의 일부로 남는 것과 과거처럼 주권이 독립된 라마왕국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 달라이 라마를 여전히 숭배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위를 살피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권’이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어리고 현 상태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마 왕국 시절에는 이런 단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 노인은 “독립은 원하지 않지만, 달라이 라마가 언제나 라싸의 포탈라궁으로 돌아올 것

으로 믿는다. 중국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며 티베트를 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 망명정부를 꾸리고 반세기 동안 독립운동을 펼치던 달라이 라마는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방침을 바꾼 상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문화적 자치만 보장된다면 독립하는 것보다 중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 티베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 중국이 티베트의 행정권만 인정하면 티베트는 독립국가로서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한화(漢化)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티베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귀국 사업을 위해 과거 독립운동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귀국만 하면 정착금과 직업을 우선 제공합니다. 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달라이 라마를 숭배한다는 말만해도 감시가 뒤따릅니다. 중국 정부는 확실한 동화 정책을 추진하며 칭장 철도를 개통하기에 이릅니다. 한족을 많이 들여보내 티베트인 비율을 낮추고 교류를 활성화해 티베트 민족을 한족에 동화시키려는 중국의 장기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치 경제 문화적 합병이 진행되고 있으며 라마 왕국의 전통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과도한 물적 인적 진입과 현대화로 인해 심적 동요와 빈부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형성된 제반 환경은 티베트의 전통과 관습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으며 젊은이들도

참과와 수유차보다는 한족의 음식과 풀라에 길들여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천장의 의식 대신 화장을 하고 야크보다는 오토바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은 일은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적 자치라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심주혁 명지대 교수

명쾌한 깨달음
| 이대로 그대로 |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연기법 수행과 선법 수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깨달음 공부의 입문서이자 결정관!

아주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써내려간 깨달음 공부의 안내서!
누구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끄는 책!

백창우 지 | 국판변형양장 | 316쪽 | 값 15,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도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